

# 기독교 박해지수

##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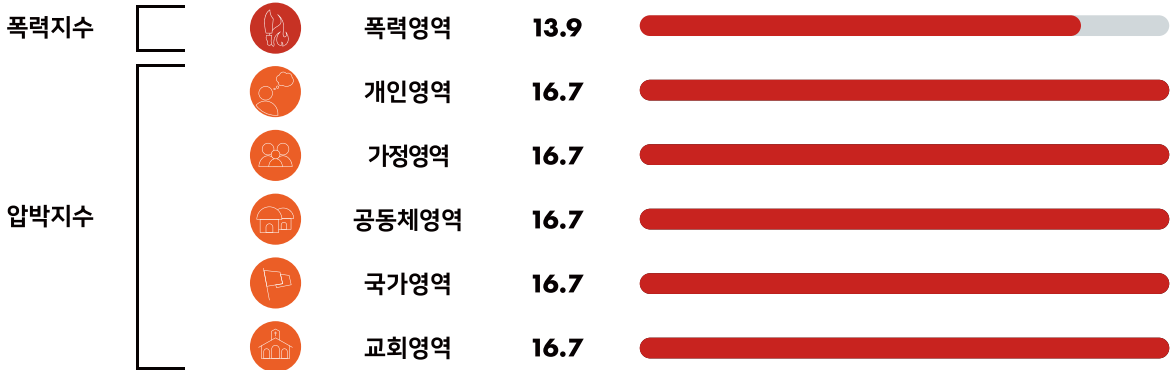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1 위

### 북한 (NORTH KOREA)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북한에서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CSW, 2024년 9월 11일). 정권은 모든 주민을 철저히 감시한다. 기독교인이 발각되면 본인과 가족이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노동수용소로 강제이송되거나, 현장에서 즉결 처형될 수 있다. 기독교인은 사회에서 어떤 자리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모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극도의 비밀 속에서만 시도될 수 있다.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제28조에서 성경을 금지했는데, 이는 국가가 기독교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관점을 드러낸다(Daily NK, 2020년 12월 15일). 외국인 방문객에게 보여 주는 평양의 교회들은 국가가 통제하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선전 목적을 수행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 북한 (NORTH KOREA)

## 국가 정보

지도자 : 김정은 최고지도자

인구 : 26,320,000명

기독교인 수 : 400,000명(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무신론

정부형태 : 일당제 공산주의 국가



© Unsplash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00,000	1.5
무신론/불가지론	18,953,500	72.0
민속종교	3,194,000	12.1
기타	3,772,500	14.4
	<b>합계</b>	<b>100%</b>

출처<sup>1</sup>

1900년대 초,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수도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사들은 전국 곳곳에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교회는 점차 더 심한 박해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김일성이 집권해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했다. 한국전쟁(1950~1953) 동안 많은 기독교인이 남한으로 피란했다. 전쟁이 끝난 뒤 정권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탄압 캠페인을 시작했다.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거나 투옥되거나 오지로 추방되었고, 교회의 나머지는 지하로 숨어들었다.

김일성주의(통치 가문 숭배)는 국가가 규정한 '국교'로 기능한다. 모든 주민은 매주 자기비판 모임에 참석

해야 하며, 100쪽이 넘는 이념 자료를 암기해야 한다. 유교의 영향 아래 북한은 '성분'이라 불리는 사회 분류 제도를 발전시켰는데, 이 제도에서 모든 주민은 핵심계층(사회 전체의 28%), 동요계층(45%), 적대계층(27%)의 세 계층으로 나뉜다. 기독교인과 그 후손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 기독교는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는 위험한 외래 종교로 간주된다. 오픈도어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노동수용소에 있다고 추정한다.

2011년부터 집권한 김정은은 의회, 정부, 군을 통제한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로켓 및 핵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힘써 왔다. 오랜 기간 예고되었던 조치로, 북한은 2022년 9월 스스로를 '핵무기 국가'로 선언했다(BBC News, 2022년 9월 9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에 대한 숭배는 그의 부친과 조부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국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권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 정권에 절실한 생명줄을 제공했는데, 북한은 곡물, 현금, 정치적 보호를 대가로 탄약, 병력, 노동자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 정보기관과 중국 경찰 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주로 여성인 탈북자들이 식별되어 강제로 송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의 얼굴 인식 기술도 이를 더 쉽게 만들었다(RFA, 2023년 6월 22일).

<sup>1</sup> 기타(Other)는 100%를 맞추기 위해 "나머지 전체"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 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함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공산주의 및 탈공산주의적 억압

북한은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가 지배적이지만, 여전히 공산주의적 관행과 사회 통제 방식에 따라 운영된다. 종교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독교인은 적대계층에 속한다.

###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김정은은 국가 선서문을 개정해 부친과 조부의 업적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자신의 업적을 더 강조했다.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김정은은 부친이나 조부를 언급하지 않았고, 국가 달력에서 가장 큰 기념일인 태양절에도 그들의 '성지'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부친과 조부가 도입해 사용해 온 주체 달력 체계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NK News, 2024년 10월 17일). 이는 그가 권력을 얼마나 공고히 했는지를 보여 준다.

위에서 언급한 박해의 원인들은 서로 매우 긴밀하게 작동해 거의 하나로 뒤섞일 정도다. 두 가지 모두의 주요 가해자는 정부 관리와 조선로동당(북한 노동당)이며, 그 다음은 일반 주민과 친족이다. 당국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와 지도자의 생존이다. 주민의 경우 이웃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하기 위해 감시하고 있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 정치범수용소와 완전통제구역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나, 최신 정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US State Department, Prisons of North Korea, 2019년 3월).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란 한국전쟁(1950~1953) 이전부터 해당 국가에 거주하던 기독교인들과 그 후손을 말한다. 전쟁 중 많은 기독교인이 사망하거나 남쪽으로 피란했거나 외딴 마을로 추방되었지만, 일부는 신앙을 숨긴 채 지하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연좌제 원리에 따라,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후손은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장벽에 직면하며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감시받는다.

### 기독교 개종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또는 '김일성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1990년대 기근 시기에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갔고 중국 교회들에서 도움을 받았다. 북한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들은 새로 갖게 된 신앙을 유지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나누었다(Associated Press, 2018년 4월 5일).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강제송환된 여성 탈북자는 강제낙태와 국경경비대의 잔혹한 처우에 직면한다. 탈북자의 최소 80%는 여성으로, 그중 많은 이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강간을 당하거나 성노예로 팔리거나 '결혼'에 강제로 내몰린다.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부는 정치범수용소로 돌아가는 일을 피하려고 독을 지니고 다니기도 한다. 북한에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되어 있으며, 여성은 수용소와 심문 과정에서 강간, 성폭력, 고문을 겪는다. 당국은 수치심을 기반으로 한 문화 속에서 신자를 굴욕시키기 위해 성적 학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이는 트라우마와 고립을 초래한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폭력 - 심리적 / 성적

### 남성

북한의 가부장적 체제에서 국가의 감시는 특히 가구의 남성 가장에게 집중된다. 모든 남성은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서 일해야 하므로 탈출이 어렵다. 기독교인은 성분 체계의 최하층에 배치되며, 3대 연좌 규정이 남성과 소년에게 특히 가혹하게 적용되어 아들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 신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져 고문과 죽음에 직면하거나, 외딴 광산, 벌목 현장, 제재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도록 내몰린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1	97
2025	1	98
2024	1	96
2023	1	98
2022	2	96

최근 보고 기간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압박은 가능한 최고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박해의 체계과 독재 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국가의 현실을 반영한다. 다만 폭력 점수는 WWL 2025의 14.4점에서 13.9점으로 하락했다. 이는 기독교인과 교회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찰 급습의 횡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노동수용소에서의 보고를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해당 국가에서 기독교인의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무기와 군 인력 제공국으로 필요로 하면서 북한 정권에 새로운 전략적 선택지가 열렸고, 이는 지도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Foreign Affairs, 2024년 12월 18일). 이는 동시에 소식과 정보의 통제를 유지하는 데도 도전을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일반 주민의 생활이 개선되었다는 의미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East Asia Forum, 2025년 2월 13일). 아울러 기독교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 Unsplash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보안상의 이유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 개인 영역

경찰과 정보기관 요원들은 예고 없이 가정을 급습하며, 기독교 관련 자료를 소지하는 일을 국가에 대한 범죄로 취급해 추방, 투옥, 또는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인들은 밤에 전파 방해가 가해진 라디오 방송을 몰래 청취하며, 예배는 '극도의 불충 행위'로 간주되고 주민들은 가족 구성원까지도 신고하도록 독려받는다.

### 가족 영역

공개적인 세례는 불가능한데, 이는 투옥이나 처형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동화로 위장해 들려주지만, 학교 교사들이 신앙과 관련해 질문하고 가정에 대해 신고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자녀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할 때에만 이를 시도한다. 김일성주의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취급된다. 기독교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체제 전복적 이념으로 묘사되며, 기독교인은 국가에 대한 배신자이자 간첩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상 주입은 유치원부터 시작된다(DailyNK,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에는 소년단 지도원들을 대상으로 한 첫 전국 단위 연수 행사가 열렸고, 이들은 아동들이 국가 이념을 배우고 따르도록 확실히 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다(NK News, 2025년 3월 31일).

### 지역사회 영역

북한은 공산주의식 이웃 감시 제도인 인민반을 적용한다. 2025년 3월 북한 당국은 이념적 결속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이웃 감시 조직 책임자들을 소집했다(NK News, 2025년 3월 18일). 무작위 경찰 조사와 비밀기관의 심문이 흔하며, 국가보위기관은 감시, 전화 도청, 은폐 장치 설치, 심지어 가짜 개종자까지 동원해 숨어 있는 기독교인을 식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둔다. 기독교 친족이 있는



사람들은 면밀한 감시를 받으며, 좋은 학교와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배치되거나 노동당에 입당하는 등 교육·진로 전반에서 접근이 차단된다.

### 국가 영역

헌법 제68조는 명목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국가 질서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더 중요한 것은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을 강제하는 노동당의 '10대 원칙'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유사 종교처럼 가능하며, 지도자나 그 가족의 선포는 심각한 처벌을 감수하지 않고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국영 매체는 기독교인을 배신자로, 기독교 선교사를 '테러리스트'로 묘사하고, 정부 채널은 그들을 범죄자와 간첩으로 규정한다. 기독교인은 재판 없이 체포될 위험이 있으며, 외국인은 장기 구금과 불공정한 재판에 직면한다.

### 교회 영역

북한에서는 평양의 국가 운영 교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관광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정권이 내세우는 '소품'으로 묘사한다. 외국 출판물에 익명으로 기고하는 일조차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정권은 특히 기독교 지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고, 그들의 나머지 네트워크에 대해 심문하는 데 관심을 둔다. 2021년 북한인권백서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개처형이 더 빈번해졌다고 보고했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북한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4.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북한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법적절차없이 처형될 위험에 놓인다(ICCPR 제6조)
- 기독교인들은 정치범수용소로 강제이송되어 고문을 당하고, 강제노동을 강요받는다 (ICCPR 제7조 및 제8조)
- 북한 주민의 삶의 모든 영역은 국가에 의해 상시적으로 감시되고 통제된다(ICCPR 제17조)
- 기독교인들은 공적·사적 영역을 불문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니고 예배할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위해 모이거나 집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ICCPR 제21조)
- 기독교인들은 '적대'로 분류되어 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ICCPR 제26조)

## 북한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미국 국무부(IRFR 2023 North Korea)에 따르면, 일반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불법적으로 무속 신앙을 실천했다. 조사자들은 전통 의례, 점술, 관상, 퇴마, 부적 사용, 사주(출생 차트) 활용, 타로 카드 등을 포함한 무속적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공적·사적 영역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기록했다. 비정부기구들은 당국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오픈도어의 북한 사역

오픈도어의 북한 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제3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박해받는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긴급 구호 지원 (식량, 의약품, 의류 등)을 제공
- 라디오 방송을 통한 훈련 제공
- 제3국에 있는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거처 제공, 훈련 실시, 그리고 훈련 자료 제공



###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